

세계정당연대의 원상적인 공조로 양상을 기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도 산동 (당첨후합동I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e.com 0801 320-7700



# 장하다! 박태환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이 10일 2008 베이징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 수영이 올림픽에 도전한 지 44년 만에 나온 첫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은 한국 스포츠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어떠한 역경도 그를 막지는 못했다

“헛! 스톱워치 쓸 줄 알아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박태환(19·단국대)이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후원사 스포츠의 손석배 마케팅팀장에게 불현듯 물었다.

그해 1월 구성된 전담팀 내부의 불화가 극에 치달은 때였고, 박태환은 세계 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을 지도해 준 박석기 전 수영대표팀 감독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12월29일 호주 시드니로 출발하는 전지훈련이 계획돼 있었고, 현지 수영장과 외국인 코치까지 섭외해 놓은 상황에서 타진 불상사였다. 박태환은 결국 혼자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신과 동행할 매니저에게 50m 구간별 시간을 체크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올림픽을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 19살의 어린 소년에게는 가혹했지만 박태환은 그곳이 이겨냈다.

코치 없이 매니저와 함께 찾아간 호주에서 박태환은 훈련에 전념했지만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박태환은 역시 수영대표팀 감독을 지낸 유은겸씨를 새 전담코치로 선임했



수영(경영)

### ■ 박태환 영광의 순간까지

대표팀 감독들간 폭행

훈련동료 자격박탈 등

약조건 딛고 챔프 등극

지만 훈련 환경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2월 말 태릉선수촌 재입촌 및 대표팀 합류를 결정하면서 10년 스승인 노민상 대표팀 감독과 재결합했다. 두달 사이에 자신을 둘러싸고 불편한 변화가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태릉에 들어간 박태환은 노 감독의 지도에 따라 이를 악물고 5개월 간의 지옥훈련을 견뎌냈다. 친구를 만나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외박을 단 2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

다. 역경을 이겨낸 박태환은 결국 10일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마침내 우승했다.

중요 대회를 앞두고 박태환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3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할 때는 노민상 감독과 자신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준 김봉조 전 대표팀 감독 사이에 폭행사건이 터졌고, 훈련파트너인 강용환은 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잡음이 계속됐지만 곳곳이 이겨내고 월드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섰다.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을 앞두고는 발바닥에 고질적인 사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3관왕의 영광을 차지했고, 2006년 2월 맹장수술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출전한 상하이 세계소프트스쿠 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월드스타로 부상했다.

한국 경영이 처음 올림픽에 도전했던 1964년 도쿄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김봉조씨는 “감개무량하다. 정말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다시 실감했다. 무엇을 던져줘도 받아먹어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있는 선수”라고 감탄했다.

/연합뉴스

## 표 72년만에 자유형 금

### ■ 박태환 금 가치는?

‘동양 남자 선수가 72년 만에 따낸 올림픽 자유형 금메달’

‘마린보이’ 박태환이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하면서 동양인도 남자 자유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했다. 자유형은 배영과 평영, 접영까지 통틀어 수영의 4가지 영법 가운데 가장 빠르게 헤엄치는 방법이다. 기술보다는 체력이나 힘이 경기력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양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종목.

올림픽 메달 역사는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동양인이 올림픽 남자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딱 세 차례 뿐이며 모두 일본인이었다.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으로 군림했던 1930년대 수영 강국이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자유형 1,500m의 기타무라 구스오와 자유형 100m의 미야자키 야스지는 동양인으로서 자유

형 최단거리와 최장거리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일본은 1936년 베를린 대회 때도 데라다 노보루가 자유형 1,500m 타이틀을 거머쥐며 일본의 이 종목 2연패를 일궈냈다.

박태환의 이번 올림픽 금메달은 동양인 남자 선수로서는 무려 72년 만에 자유형 금메달이며, 메달 색깔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48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처럼 귀중한 박태환의 금메달은 당연히 한국 수영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선물이다.

한국이 올림픽 수영에 도전한 지 44년이 지난지만 역대 최고 성적은 2004년 아테네 때 남유선(강원도청)이 여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 오른 것이 고작이었다.

워터큐브에서 박태환이 이룩한 업적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을 제패한 손기정 선생과 1992년 ‘몬주익의 영웅’이 된 황영조와 더불어 잊혀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 ■ 한국 첫 금 최민호

## 유도 5연속 한판승...순발력 탁월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작은 거인’ 최민호(28·한국마사회)는 순간적인 파워나 경기 운영 능력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던 선수였다. 그럼에도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동메달에 그쳤던 것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체력 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었다. 4년 전 아테네에서도 체중 감량에 실패한데다 8강 경기 도중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런 점을 대회 전부터 의식한 최민호는 첫 판부터 속전속결로 나갔다. 1회전 부전승에 이어 2회전 미겔 앙헬 알바라킨(아르헨티나)을 1분16초만에 업어치기 한판, 3

회전은 마소드 아론자데(이란)를 역시 1분 18초만에 한팔업어치기로 돌려세웠다.

8강 상대였던 리소드 소비로프(우즈베키스탄)를 맞아도 주먹기인 업어치기로 경기 시작 2분28초만에 한판으로 승리했고 4강에서는 지난 해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루벤 후케스(네덜란드)를 24초만에 다리잡아 메치기 한판으로 꺾었다. 결승에 오르니까 지 네 경기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20분을 땀을 뻘어야 했지만 실제 최민호가 매트에서 서 있던 시간은 다 합해도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8강까지 연속해서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거뒀는데 이는 최민호의 주특기인 업어치기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최민호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60kg 급 결승에서 오스트리아의 루드비히 파이셔에게 한판승을 거두고 있다. /연합뉴스

## 두둑한 보너스...최소 3억원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작은 거인’ 최민호가 유도 세계 최강 명예는 물론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다.

최민호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책정한 메달 포상금의 첫 금메달 수혜자로 5만 달러(한화 5천120만원)를 손에 넣는다. 은메달은 2만5천달러, 동메달은 1만 5천달러다.

소속팀 마사회로부터 받는 액수는 더욱 크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창원경륜공단에서 마사회로 옮긴 최민호는 따라서 2억원을 손에 쥘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같은 팀의 이원희는 마사회로부터 당시 1억원을 받았다.

최민호는 또 대한유도회가 정한 금메달 포상액 5천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마사회 2억원, 문화부 5천120만원, 유도협회 5천만원 등을 합치면 무려 3억120만원의 거액이다.

최민호는 메달 포상금과 별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금메달 월 정액으로 100만원(연금점수 90점)을 확보했다.

연금 점수 상한선(110점)을 넘으면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씩 일시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종전 연금 점수가 69점이었던 최민호는 159점으로 끌어올리면서 초과 점수 49점에 대한 2천여만원도 덩어리로 챙길 수 있게 됐다.